**객사(客舍)-다자이후의 풍성한 환대에 주목한 새로운 발견**

7세기부터 9세기에 걸쳐 다자이후는 국제 외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외국 고관을 비롯한 수행원들은 하카타만에 배를 타고 들어오면, 교토나 나라의 도읍으로 이동하기 전에 다자이후로 안내되었습니다. 드넓은 행정복합시설의 중심에 위치한 궁전 같은 모습의 정청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가장 최근에는 고고학자들이 외국의 고관들이 방문했을 때 사용했던 객사를 발견했습니다.

발굴조사를 통해 당시 숙박시설에서 일본식 환대, 즉 최고급 환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산 옻칠 그릇, 중국 도자기, 포개진 상태의 한국 금속 식기를 포함한 고급 식기의 파편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같은 식기들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외국의 고관들은 세심한 배려와 예의를 다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다자이후는 바둑판 모양의 도시 구상에서부터, 중국의 철학 이론의 역할을 시사하는 남향의 관공서 건설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최근에 발견된 객사에서 이루어진 의례에서 외국의 고관들은 동쪽에서, 외국 고관들을 맞이하러 나온 일본의 고관들은 서쪽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중국의 철학 이론에 따르면, 동쪽은 주인을 위해 확보하는 자리로서 외국 사절단은 객사 내에서 주인의 역할에 해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객사는 방문객의 본국 영지와 동일하게 간주되는 오늘날의 대사관과 비슷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역사가들은 공식적인 외교 의례는 객사에서 1km 떨어진 북쪽에 위치한 다자이후 정청 터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옛날 위용을 자랑하던 정청의 모습은 오늘날에는 옛 터로만 남아 있지만, 바로 곁에 자리한 다자이후 전시관에서 다자이후의 풍요로운 역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